

최고 위생용기업체로 자리매김

“

유리용기의
깨끗함은
업계 최고의
자랑

”

유리 용기의 산실로 각종 유리제품들이 태어나 살아 숨쉬는 안성유리공업(주)(대표이사 정해영)은 소비자의 신뢰를 제일로 생각하며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 제약업체에 약병, 음료식품업체에 드링크 병, 농약업체에 농약용기, 맥주 회사에 맥주병 등 제품에 따른 특성을 살려 생산 제공하고 있다.

유리는 모래 같은 광물이 1600도의 고온에서 녹아 흘러져 정교한 금형을 통해 소비자들이 항상 접하는 으로 탄생되는 신비스러운 유리용기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포장용기로서 1600도의 고온 용해용기로서 태어나는 유리용기는 뜨거운 고향 덕분에 최고의 위생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고온에서 탄생한 유리 용기의 깨끗함은 업계 최고의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유리 용기는 100% 재활용이 가능해 자원의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리 용기 제조 원료 또한 국내의 자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여타 포장용기에 비해 국내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토종 산업이다.

현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유리병 업체도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 동안 유리업계는 과당 경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리용기 업종은 24시간 용해로를 가동해야하는 특수성으로 생산량을 수요에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업계의 운명이 좌우



이석구 / 안성유리공업(주) 영업부장

1953년 6월 충남 논산시에서 출생
1982년 10월 안성유리 공업(주) 입사
2000년 2월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2년 현재 안성유리공업(주) 영업부장

됐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재고의 누적으로 업체간 과당 경쟁을 해야 하는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되곤 했다. 특히, 안성유리공업(주)의 경우 IMF의 어려웠던 시기를 겪으면서 생산 시설의 축소 및 공장 가동을 일부 중지해야 했다. 98년 3월, 2개의 로중 1개를 운영중지 시켰으며 직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인구조조정이 이루어져 100여명 정도의 인원 감축이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해 왔던 동료들과의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유리용기 제품을 공급해 온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임직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옛말에 아이가 한번 앓고 나면 영리해지고 튼튼해진다는 말이 있듯 안성유리공업(주)을 비롯한 유리용기 업계는 IMF라는 처음 겪는 홍역을 치루면서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했다.

현재 각사의 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수요에 맞도록 공장 가동을 조정, 당장의 아픔을 근로자들과 슬기롭게 풀어나가 업계 서로간의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하는 동업자 관계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업체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기술을 습득, 품질 향상에 정성을 다했으며 임직원들은 흠족하지 않은 임금에도 불평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했다.

이로 인해 업계의 경영은 호전되었고 3D업종이라는 유리업계와 사양산업이라는 유리 용기 제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을 달리 하게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들이 치루어짐에 따라 유리용기 업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올 한해를 도약의 해로 삼아 위생용기로서의 최고의 위치를 굳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유리용기 업종은 이제 편리함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위생용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유리용기산업은 장치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는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IT산업 같은 신 개념의 산업들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리용기 산업과 같은 OFF산업이 기초가 되어 국가의 산업 기반을 지탱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유리용기업계는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

타 업종에 비해 노사분규 없이 여건이 안 좋아도 묵묵히 참아내며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임직원들로 가득한 안성유리공업(주)을 비롯한 국내 유리용기제조 업체는 포장용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

**IMF시기에는
100여명의
직원이
구조조정되는
아픔을 겪었다.**

**올 한해를
도약의 해로
삼아 위생용기
업체로서
최고의 위치를
굳힐 것**